신앙 성장 시리즈 29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Finishing Well

www.odb.or.kr
한국오늘의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29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Finishing Well

ⓒ RBC Ministries

인　　쇄 : 2007년 11월 10일
발　　행 : 2007년 11월 18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편집·교정 : 김정원,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차례

발간사 / 4
서문 / 5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 7
앞날을 내다보며 은혜롭게 변화하자 ····· 13
육체의 노화에 대처 / 15
직업에 대한 불만 극복 / 22
가족의 변화에 적응 / 28
은퇴 생활에 적응 / 34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비 / 43
남에게 도움받기 / 47
유산에 대한 계획 / 49
자기 평가 / 51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지 못했던 신실한 왕 ···· 56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했던 바리새인 ····· 58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하여 ····· 60

표지그림 : 신장식의 "금강산의 빛"

발간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저는 늘 "시작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끝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끝은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끝이 가까워질수록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나고, 건강을 잃고, 체력을 잃고, 직장을 잃고, 경제력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미모를 잃고, 정신력과 영적인 힘마저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너진 집이 추하기는 하지만 무너진 인간처럼 처참한 모습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대처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이것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책을 한번 꼭 읽고, 생각해보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책은 성경 말씀과 현실 사례를 자료로 삼아 마지막 유산 처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사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이 책자를 번역하고 편집하고 출판해 주신 한국오늘의양식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서문

변화하는 인생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길

지난 수년간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협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도덕적, 영적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거나, 깨어진 꿈으로 허무함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한다는 중대한 목표에 대해 상기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RBC 주필 Herb Vander Lugt의 본보기적인 삶과 그가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요약해준 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틴 알 디 한 2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이란 책의 마지막 장을 제대로 덮는 올바른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차분하고, 위엄 있고, 은혜롭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나는 리차드 네이스 부인이 몇 주일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했던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집을 개방하고 명랑하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삶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름답게 맞이하는 문제는 나이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하직 인사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녀야할 마음가짐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세상을 떠날 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도박하듯 살다가 간 바보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살아야합니다. 최근에 나는 30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난 두 젊은이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내와 세 아이를 둔 남편이었던 39세의 반 다이크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투숙했던 모텔에서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알고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를 본향으로 불렀을 때 매우 감사해 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고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직장에서는 존경받았으며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케빈 로트만은 19세에 산업재해로 죽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고, 상냥한 아들이고 손자이자 맏형이었으며 결혼을 약속한 처녀에게는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문제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미처 예기치 못한 채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믿어온 우리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을 잘 이끌었고, 사려 깊은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머물렀던 기간과는 관계없이 아름답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대단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도덕 속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스럽게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 또는 동성애 열망과 맞서 싸우지만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지난 잘못을 지워버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겪은 사람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과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을 생각해 봅시다 (왕하 21장; 대하 33장). 아버지였던 유다의 히스기야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그는 사술을 행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였으며 몰렉 우상에게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55년의 통치기간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나쁜 일을 돌이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평화롭게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부도덕한 생활로 망쳐버렸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몇 해를 보낸 후 50대 후반에 이르러 바람을 피워서 아내와 이혼하고 젊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녀들을 수치스럽게 했으며 손자들에게 쓰라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얻은 새로운 삶이 기대했던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상처를 주었던 아내와는 재결합하지 못했지만 죽기 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 다시 가족과 친구들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척 콜슨은 사형수 감방에 있었던 러스티 우머스가 회심을 하고 마지막을 맞았던 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뉘우쳤던 러스티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만나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가를 말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적인 이별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기의자에 앉았습니다.

므낫세나 나이든 아버지나 러스티는 죄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들의 마지막 나날들을 하나님과 교제하

다가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회개와 회복에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화들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으면서 누리는 기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는 기억을 이 세상에 남기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바른 삶을 살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며 은혜롭게 변화하자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 할 수 있는지에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사춘기로 성인기로 성장합니다. 성인이 되면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독신에서 결혼하여 둘이 되고,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앞으로만 나아가다가 정점에 다다르면 사다리에서 내려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관관계도 변합니다. 부모, 삼촌 혹은 숙모와 그 분들의 세대의 다른 구성원들은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라고 독립해서 떠나갑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한사람, 한사람씩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찬송가 작사자 헨리 라이트가 쓴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라는 찬송가에는 깊은 통찰력이 보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려면 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변화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아래 8개 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1. 육체의 노화에 대처
2. 직업에 대한 불만 극복
3. 가족의 변화에 적응
4. 은퇴 생활에 적응
5. 배우자와의 사별에 대비
6. 남에게 도움 받기
7. 유산에 대한 계획
8. 자기 평가

아내와 나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을 축하하러 우리 집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사진 속의 나는 물결처럼 굽이치는 머리카락의 체중 63킬로그램의 날씬한 젊은이 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1950년대에 찍은 사진 속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나 1941년의 우리보다는 젊지 않습니다. 세월이 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오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늙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80대의 사람들이 “나는 나이 먹은 것을 못 느끼겠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나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쇠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역시 그 나름대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볼 경기를 할 때 내가 땅 볼을 치고 죽을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1루까지 나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공을 던질 수는 있지만 공은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뜨고 맙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한 아침에는 약장 속에서 아스피린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만큼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아주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 중에는 외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30세가 넘으면서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육체의 노화 대처법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응하자 (2)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3) 합리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활동하자

1. 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대응하자

나이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든 모습이 굴욕적인 것도 아닙니다.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을 창피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 25:8) 라고 써져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심각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왕상 12장). 이스라엘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 24:31).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레 19:32)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 12:12). 백발은 나이든 사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 20:29). 그러므로 우리에 주어지는 한해 한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야 하고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햇수가 더해져감에 따라 당연히 책임도 더해 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의 능력도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젊은 친구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회중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돕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딛 2:1-4).

나이든 남자들의 덕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절제 - 두뇌가 맑고, 신중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2) 경건 - 몸가짐에 위엄이 있고, 영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3) 근신 - 노여움, 애착, 나약함을 극복합니다. (4) 온전 - 영적으로 건전하고 믿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면에서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성경은 나이든 여자들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딛 2:3-4).

나이든 여자들의 덕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행실이 경건함 -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경건하여 술이나 소문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2) 선한 것을 가르침 -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어서 죽기보다는 늙기까지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까다롭게 굴거나 우리 길을 고집하거나 불유쾌한 늙은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바울이 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기 시작해도 영적으로는 반대로 강건해져서 "늙은" 혹은 "나이든" 단계에 이르렀을 때 디도서 2장 1-4절이 주는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육체의 노화에 대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4)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은 젊어서부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아는 간호사 한 분은 근육이 굳어버리는 복합경화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점점 무력해지는 자신의 병의 진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늘 명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이 병의 문제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즐거움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다녀야하고 말하는 것도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렵지만 항상 아름다운 몸가짐으로 아직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부인은 12년 째 통증이 아주 심한 골수종과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진정되는 날에는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주변 사람에게 상냥하게 다가갔습니다. 내일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이 올 때까지 아름답고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언짢은 가능성에 대해 병적으로 사로잡히는 대신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전 10:13).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28:20).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내일 문제는 내일 염려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간증을 만들면서 우리의 남은 삶에 많은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활동하자

육체의 노화에 잘 대처하기 위한 세 번째 실질적 제안은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안하고 무난한 길을 취하여 그냥 앉아 있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실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화에 결연하게 대처하느라 너무나 많은 비타민과 강장제를 섭취하고 맹목적으로 격렬하게 운동하고 젊어보이게 하려고 많은 돈을 쓰기도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노화 과정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딤전 4:8)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영원히 유익이 되는 삶의 영적인 측면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운동이나 식사 조절 훈련은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분이 더 좋아지게 도와주고 이 땅에서 몇 년 더 쾌적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합리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되 영적인 준비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에 대한 불만 극복

우리는 모두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들 중 많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는 또 직장에서의 승진으로 인한 급여 상승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복잡하고 변화하는

기술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에서의 발전이 중단되는 시점이 너무나 빨리 옵니다. 이제 단지 40대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은 시점에 그는 새로이 훈련 받은 젊은 사람들이 그를 추월해 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퇴출될 수도 있고 그가 받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직장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거의 쉰 살이 되어 가는 내 조카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은퇴할 만큼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다른 직업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세기를 살고나면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잘 부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껏 한 일이라고는 자동차 판매 영업뿐인데 퇴직할 때 정말로 내가 성취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노동자든, 숙련공이든, 전문인이든, 최고 경영자든,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은 젊은 날에 누렸던 화려함, 이상과 기대들이 엄숙한 자기평가로 대체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52세의 한 유능한 외과의사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일에서 거의 만족이나 성취감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살짝 미루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3개의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은 내게 그의 성공이 자신에게 그다지 큰 기쁨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과

상반되는 중년, 노년층 중에는 자신이 결코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었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위대한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과 "성공도 못했고 좌절하는" 사람 모두 참된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부를 쌓았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이루었느냐"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두 가지 위험한 "괴물"인 행동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행동주의는 "당신이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당신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주의는 "당신이 얼마나 벌었느냐 혹은 부를 쌓았느냐가 당신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주의와 물질주의는 모두 불행을 초래하며 삶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룩한 성공이나 쌓아올린 경제적인 부유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게 하신데 있습니다 (창 1:27-30; 시 8편). 그러

므로 우리들 모두는 지구상에서 특별한 위엄과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도록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삼위일체의 두 번째인 예수님이 인간의 구성원이 되어 죄 없이 사신 후,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 죽고 (요 3:16; 고후 5:21),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고전 15:25-58)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엡 1:3-6).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믿는 자들은 언젠가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인 지혜로운 존재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엡 2:6-7; 3:10-11) 우리는 모두 살았을 때나 죽은 후에도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시편 116편 15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서 "귀중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간혹 "가치 있는"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삼하 12:30

에 나오는 "귀중한 돌"이란 보석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잠언 12장 27절에서처럼 수고와 고통으로 얻은 즉, "값비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시편기자는 죽음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값비싼" 것이라는 개념이 문맥상 더 적합합니다. 헌신적인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으로서는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선택하였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았고, 거듭남을 통해 변화되었고, 내재한 성령이 주신 은사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함부로 죽도록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치의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가정의 부인이며 엄마인 32세의 신디에게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깊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 10:29-31) 그 순간에 이 젊은 부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슬퍼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디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은 당신과 나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치의 기준은 우리의 유명함이나 부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의 변화에 적응

우리가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또 다른 영역은 가족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엄마, 아빠, 형제자매 그리고 아마 애완동물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바로 지금 그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을 누구인가가 대체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그림은 우리의 감정을 휘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족 간의 관계는 계속 변합니다. 자녀들은 점점 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독립하게 되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조부모가 됩니다. 자신들이 중년이 되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전에 다시 두 사람만 뎅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시련들을 통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과 더불어 살던 시절의 떠들썩함과 생동감을 그리워합니다. 슬프게도 이 시점에서 많은 결혼생활이 못마땅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지혜로운 길이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각자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하여 그들은 평생 지속될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했던 바로 그대로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룹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이 부부 관계를 망치는 일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33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서로 순종하는 자세는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나는 배우자 중 한 쪽이 자녀들의 뒤로 밀려난다고 느꼈을 때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열망하여 남편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보입니다. 더러는 아버지들이 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열성이 지나쳐 "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저들"(어머니와 딸)과 대결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얼마 전 내 아내와 나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쇼핑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젊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며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내는 "이 사람들은

우리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서로 사랑하겠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결혼생활에는 변화가 옵니다. 부부생활도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성들이 부부생활 백서 같은 책을 사거나 자극을 얻기 위해 음란 출판 서적이나 영화를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적인 능력 저하에 괘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를 나누며, 친절하게 감싸고, 더불어 나눌 관심사를 개발하고, 기도하며 생활하면 아주 늙도록 만족스런 부부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자녀와 손자손녀들과의 관계

미국에는 자동차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에 노인과 그들의 손자손녀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이 좋다", "행복이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는 내 자녀의 자식들과 같이 지냅니다."라고도 합니다. 많은 할아버

지 할머니들이 이제는 성장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과 지내는 일이 너무 즐거워서 젊은 부모였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65세의 혼자 사는 부인에게 농담으로 좋은 남편을 구해주겠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정색을 하면서 "감사합니다만 나는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과 손자손녀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 자녀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돈을 물려받으려고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어요."라고 하는 80세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계를 훌륭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장한 후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부모들과 늘 연락을 할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참견하거나 지배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랑받기 좋은 사람으로 자신들을 만들어갑니다. 손자손녀를 사랑하되 그들의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혼자된 할머니들 중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특히 양로원에 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양친이 모두 계신 집을 방문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머니가 사는 양로원에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개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자녀나 손자손녀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어머니, 할머니를 모른 체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잘못된 본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자라서 자기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할 것이 확실합니다.

서로 헌신하고 온화하게 사랑하고 깊이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내립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2절-6장 3절에 바울이 이 사실을 담아놓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을 주고나서 바로 뒤이어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거듭 촉구합니다.

노년에서의 행복을 얻는 데는 끈끈한 가족관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나이든 한 부부는 자녀들과 손자손녀와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즐

거워서 이제부터는 겨울에도 그냥 집에서 지내겠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양로원에서 사는 혼자된 한 할머니는 내 아내에게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이 그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손자손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이처럼 친밀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그들이 늙었을 때 같은 사랑을 받을 것임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관계를 잘 형성하면 미래에 큰 이익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은퇴 생활에 적응

사람이 꼭 적응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은퇴와 함께 넘치게 된 자유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며 지내던 시절에는 은퇴한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은퇴자들은 원할 때는 언제든 골프나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잘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생활입니까! 그러나 은퇴한 사

람들의 실상은 일하던 시절보다 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여가활동인 골프나

낚시를 매일 매일 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 중에는 권태로워하며 배우자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죽는 날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은퇴 후 새로운 경력을 쌓아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은퇴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집안일도 바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교회 행사에도 참가하고 성경공부반에도 등록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손녀들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들 자신도 놀라울 지경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1) 의미 있는 기도
(2) 즐거운 활동
(3) 남을 돕는 봉사
(4) 적극적인 마음가짐

1. 의미 있는 기도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배우자와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하십시오. 몇 시에, 얼마나 오래,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 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오늘의 양식"을 사용하여 함께 기도모임을 갖고 개인적인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책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 목록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억과 성령의 도움에 따라 중보기도를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시 1:2)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시 5:3)

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다락방에 올라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단 6:10)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마 7: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교훈했습니다 (롬 12:12; 엡 6:17-18; 빌 4:6; 골 4:2; 살전 5:17; 딤전 2:1).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신앙심 깊은 은퇴자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2. 즐거운 활동

은퇴자들은 반드시 즐거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는 없지만 활동을 통한 건전하고 유익한 즐거움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만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남녀, 빈부를 막론하고 일상의 땀 흘리는 수고 후 쉬게 했습니다. 수고하고 난 뒤 쉬는 것은 게으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잠언기자는 반복해서 게으른 자에게 경고 합니다 (잠 6:6,9; 12:24). 바울도 게으름에 대해 경고 합니다 (딤전 4:11; 5:13).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게으른 것은 나쁜 것입니다. 적절한 즐거움은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개조하고 수리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어느 은퇴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진다거나 고칠 것이 있다는 말을 아내에게서 들으면 너무나 기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골프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운동 경기를 즐겨 관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많습니다.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선언합니다.

3. 남을 돕는 봉사

은퇴 후에 얻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요리 솜씨가 좋은 나이든 부인은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한 가정에 갖다 주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으면 다른 부인들까지 그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고장난 것들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 은퇴자는 자기보다 더 나이든 사람들의 집 배관이 막히거나 목공일이 필요하면 무료로 고쳐줍니다. 어떤 조그만 마을의 은퇴한 목사님은 지방신문 부고란을 살펴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무료 상담도 해줍니다. 80대의 노부인은 바깥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또 학교 졸업 시즌이 되면 젊은 졸업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쪽지를 보냅니다. 또 다른 노부인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대단히 유용하고 유익하게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축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렸던 노인의 모습을 시로 묘사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우리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시 92:12-14)

4. 적극적인 마음가짐

우리의 은퇴기를 최고의 시절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기억상실이나 치매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흥미 있는 사실은 늙어서도 이해력이 뛰어나고 활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50세 무렵에 죽었는데 임종하는 자리에 아들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영감을 받아 먼 앞을 내다보는 웅변적 예언을 합니다 (창 48-49). 모세는 120세에 또렷한 정신으로 자기가 죽을 느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 34장). 갈렙도 85세에 군대 지휘권을 자청하여 나중에 헤브론이라 불

린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수 14장).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와 구원을 받아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던 때가 90세였습니다 (단 6:28).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나이든 시므온과 84세의 과부 안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야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깊은 뜻을 널리 퍼뜨립니다 (눅 2:25-38).

늙으면 노망이 든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기록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노망이 드는 주된 이유는, 많은 노인들이 그들로부터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의사인 윌리엄 가서는 노망에 대한 일련의 사례를 소개한 뒤 대부분의 "노망"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 받아들이게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주면 치료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신적 활동 과정이 실제로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빨리 암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보는 것을 별 것 아닌 걸로 생각해서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에도 일부

기인합니다. 노인들은 어떤 것을 암기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혼란스러워지는데 그 혼란함을 제쳐놓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든 분들은 자신의 이런 경향을 인지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노망기나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배우고 싶어 하고 기억하거나 외울 수 있다고 믿는 나이든 분들은 명민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공부와 기도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통찰력이 조화를 이루면 삶의 모든 부분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단순한 기쁨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고양됩니다. 자연의 풍경과, 소리 그리고 향기, 조그만 아이들이 재잘대고 웃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과의 조용한 교제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 마음과 몸의 고통을 참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 그들의 만년에 커다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풍성하고 유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변화 중 하나는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이는 우리가 젊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늙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기 전과 배우자와 사별한 난 후,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진지한 문제를 다루어 봅시다.

1. 배우자와 사별 전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부부들이 직면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떠나보내는 쪽이 다루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면서 부부는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해 (이 장치가 단지 배우자의 죽음을 지연시키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될 배우자는 양로원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계속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미리 이 문제를 서로 철저하게 의논했다면 혼자 남은 쪽은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에 대해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혼자 남은 배우자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 자세에 성경공부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보태지면 불가피한 일에 대비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롬 8:16) 것을 우리가 아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힘에 의하여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 배우자와 사별 후

배우자와 사별한 직후에는 살아있는 쪽은 다소 무뎌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당장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이에 더하여 친척과 친구들이 대개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은 현실이 고착된 몇 주 후에 축적됩니다. 남은 배우자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암울한 시기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심각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이가 많은 나의 친구 한 사람은 아내와 사별한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자녀들과 함께 살 목적으로 이동주택을 팔았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그가 살았던 이동주택 단지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단지는 이미 만원이 되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동주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로원으로 이사를 갔고 그 곳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죽은 후 그렇게 조급하게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적응 기간에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는 인생을

즐거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편 30편을 쓴 기자는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에서 크나큰 고통의 시간 동안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최후의 말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찬양의 노래는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 받은 사람들에 의해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저녁의 눈물이 아침의 노래가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캐롤린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아주 다정다감했던 그녀의 남편 유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인생이 즐겁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는 곳을 알고 다시 볼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 받기

나이 들어 적응이 필요한 또 다른 변화는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으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의 정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혼자서 잘 해나가는 반면, 오랜 기간 어찌해볼 도리 없이 무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으로 돌아가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4)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이 곧 현실로부터 정신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압니다. 52세의 목회자는 치매의 초기 증세가 나타나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은 치매로 혼란스럽더라도 그의 내적인 영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아내와 가족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언젠가는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시작할 때 자존심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훈련으로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커다란 기쁨과 성취감을 발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주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사립요양원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 친구인 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시작할 때 자존심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렛은 보람이 너무 커서 이 일을 한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많은 나이든 부인들이 병든 남편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커다란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누구에겐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신포도주에 적신 스펀지를 구세주께 드린 사람은 아마도 이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기를 허락 받았기에 큰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 19:28-30).

유산에 대한 계획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에 머물게 될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나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쌓았고 위력을 행사하던 소유물들을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늙었건 젊었건 우리 모두는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유언장이나 신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뒤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이 일이 갑절로 중요해집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닌 재산이 우리가 살면서 형성한 영적 영향력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반드시 철저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나는 죽은 아들딸들에 대한 사랑스런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부모들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나에 의해 우리가 죽은 후 이 세상에 남길 향기가 결정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향기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비유했습니다.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후 2:14-16).

당신의 "향기"는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고 당신의 삶의 향기를 통해 영향을 받아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고 하늘에서도 영향을 주는 변화를 당신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는 우리

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혹시 정죄 받지 않을까 걱정하여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삶이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용하였나요? 우리는 단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믿음만 있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순종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잘하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는 단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믿음만 있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은 커다란 손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를 "금, 은, 보석"으로 기초를 세운 건물과 "나무, 풀, 짚"으로 기초를 세운 건물로 상징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무엇을 사용했는지는 불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세운 기초는 불에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도 불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심판대를 경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양쪽 세계의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지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을 조금 더 받건 덜 받건 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찬

성하며 자신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심판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후 5:11)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슬픔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므로 위선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경외롭고,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경외로운 사건이어서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심판을 간절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순종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면류관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

예수님을 뵙고 "잘 하였도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비된 "의의 면류관"을 그가 받는 의식으로 고대했습니다 (딤후 4:8).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해하는 친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바로 그 분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잘 하였도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지 못했던 신실한 왕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시작은 잘 했습니다 (삼상 16장, 왕상 2:10; 대상 1-29장). 소년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골리앗을 죽이는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삼상 17장). 은사를 받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으며 저술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가리켜 "그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삼상 13:14). 여러 면에서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의 왕들을 모방하여 여러 번 결혼하여 많은 왕비를 두었습니다. 또한 50대에는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면 그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화를 내기만 했지 아무런 후속조치도 내리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며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이때도 압살롬을 만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하 13-14장). 몇 년 후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이나 전차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히 보여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신 17:15-16). 침상에서 죽음에 임하면서도 다윗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찾아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크게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솔로몬에게 복수를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숭고한 그의 시의 내용을 훨씬 더 좋게 실증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했던 바리새인

바울은 교육을 잘 받은 바리새인이며 열성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행 9-28장). 그는 그가 이해했던 모세의 율법서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허락했고 박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기적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의 순간에 바울이 했던 말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행 9:6)였습니다. 이 말이 그의 평생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믿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30년 이상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고후 11:23-33). 그는 동역자가 오해를 하거나 중상모략을 할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 1:14-18).

바울은 마침내 체포되어 마메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의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 날부터 바울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을 그토록 승리하며 마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하여

뇌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미시간 주 하원의원 폴 헨리는 그의 처지를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이 폴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뇌암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폴 헨리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생기 있는 믿음의 향기와 변화된 삶을 뒤에 남기고 갔습니다.

당신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

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롬 3:23; 6:23; 10:9-10,13). 그러면 당신은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소년시절에 배운 오래된 교리문답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1 1:8-9), 원수마저 사랑하고 (마 5:44),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한 (엡 5:18-21)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따르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앙성장 시리즈 –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❶ 절망에서 희망으로(How To Get Up When You're Down)
좌절감,고통,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❷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Who Needs Church?)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❸ 오 신실하신 하나님(Believe :God Is Faithful)
우리를 사랑하시고,돌보시고,인도하시고,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❹ 복 있는 사람(What Does It Take To Be Happy?)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❺ 균형 있는 가정생활(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❻ 왜 살아야 하나?(Why In The World Am I Here?)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❼ 행복한 결혼생활(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❽ 남자다운 남자(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❾ 여자다운 여자(What Does God Expect Of A Wo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❿ 걱정 없이 살고 싶다(What Can I Do With My Worry?)
왜 걱정합니까? 걱정 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⓫ 다시 찾은 사랑(The Way Back)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⓭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Time With God)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⓮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What Kind Of Worship Is God Looking For?)
평생 드리는 귀중한 예배,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⓯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A Parent Find Peace Of Mind?)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⑯ 결혼의 약속(What Is The Promise Of Marriage?)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⑰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How Can I Feel Good About Myself?)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 긍적적인 가치관을 갖는 길

⑱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Studies In Contrast:The Doctrine Of Salvation)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신앙

⑲ 균형있는 기독론(Studies In Contrast:The Doctrine Of Christ)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

⑳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What I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 나가는 길

㉑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㉒ 교회 지도자의 자격(Who Qualifies To Be A Church Leader?)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지도자의 대한 성경적 기준

㉓ 갈등 해결의 방법
(Developing The Art Of Gracious Disagreement:Surviving Church Conflict)
갈등해결을 위한 성경적 방법

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What Do You Do With A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해답

㉕ 종교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다른가?
(Religion Or Christ :What's The Difference?)
그리스도와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바로 아는 길

㉖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Jesus' Parables About Money)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에 대한 참 된 지혜

㉗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How Can I Find Satisfaction In My Work)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해결책

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Does God want me well?)
질병과 건강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

「오늘의 양식」「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받는사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H · P	
	우편번호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구 분	❶신규 ❷주소변경 ❸부수변경 ❹재신청 ❺취소			현금입금은행 :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신 청 부 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